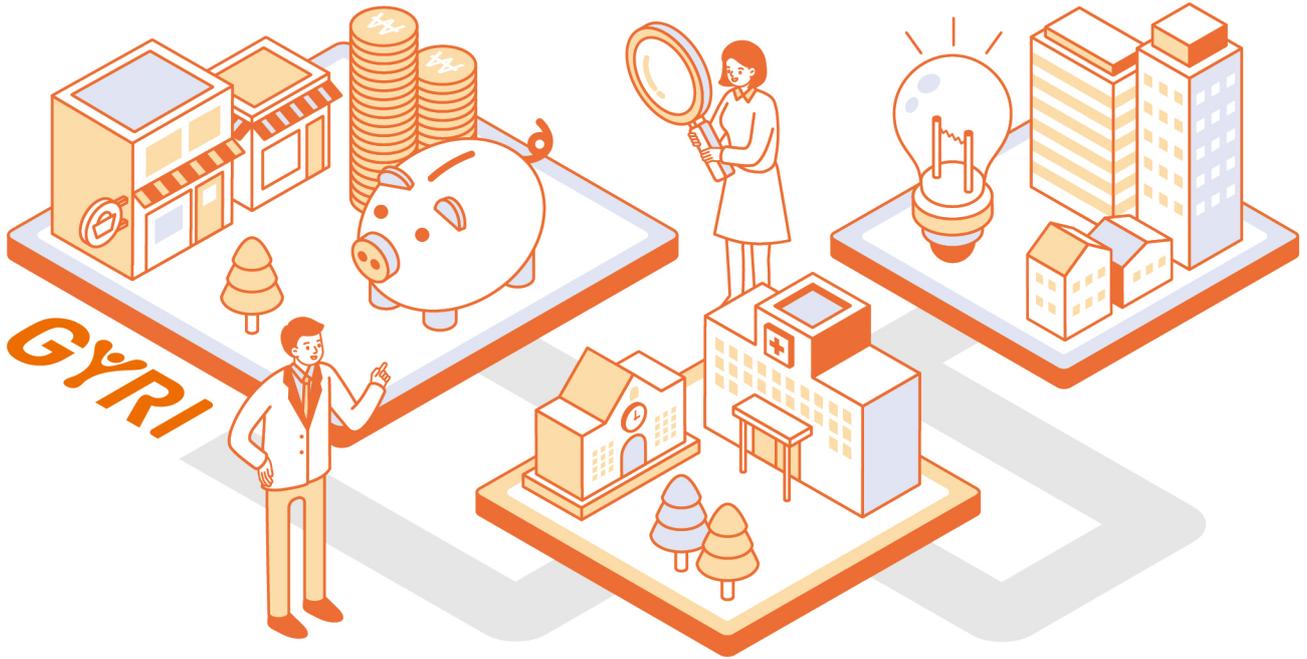


이슈 Issue Brief 브리프

16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과 실행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7월 22일
발행인 정원호
발행기관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www.goyang.re.kr.

연구책임자
안지호(ajh@goyang.re.kr)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은경
 시민정책연구실, 위촉연구위원

본보고서
 보고서명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과
 실행방안 연구
 저자 : 안지호, 김은경
 발행일자 : 2021년 12월 24일

요약

- 01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참여, 정의가 응축된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는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
- 02 연구자는 독일, 경기도의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3년간 고양시 민주 시민교육의 주요 사업과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고양시민과 시민활동가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과 실행방안 도출
- 03 고양형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사업과 민주시민교육 뿌리내리기 사업으로 나뉨.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사업은 고양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준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공론장 형성. 민주시민교육 뿌리내리기 사업은 관련 조례와 상위조례의 재·개정, 교육 콘텐츠 개발,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

01

민주시민교육 왜 필요한가?

○ 민주시민교육이란?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과 자질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해독제(antidote) 역할을 함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으로 개인적 책임성, 참여적 시민성, 정의 지향적 시민성의 융합이며, 순종적인 교육이 아닌 자발성이 드러나야 하는 교육임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회화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임
-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시민성과 같은 추상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생산·변혁 하는 사람에 관한 문제임
-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글로 읽고 이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체적으로 느끼고 직접 실천하는 감응(affect)의 문제임

02

독일과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따라,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의 교육과 민간영역의 교육, 정치영역의 교육으로 구분됨
-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시민의식을 장려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주정치교육원은 연방정치교육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자매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역할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장려하고 정치에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임
- 독일민주시민교육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정치교육원이 각 주별로 조직 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관, 조직, 시민단체, 재단, 협회, 단체, 개인 등에 의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들 주체 중 주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

- 기타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는 정당과 정치재단, 사회단체, 시민대학 등이 있으며, 연방정치교육원 및 주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되 자율성을 유지한 채 상호 협조하여 운영됨

○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 경기도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근거로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1)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시민성을 갖춘 깨어 있는 경기도민 양성, (2) 생애주기/대상별 및 공동체에 기반한 시민교육 체계 구축, (3) 도-시군 협업,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실천역량 강화, (4) 민관/기관간 협력,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시민교육 성장환경 조성을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소관부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외에도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03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사업 현황

- 2018년 5월 제정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근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은 고양시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가 주관하며, 관내 비영리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보조금(도비+시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원탁테이블 포럼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단편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고양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인권, 생태, 문화, 교육, 청년 등 주제로 모니터링사업, 교육지원 (학교, 역량강화 등), 생활지원, 연대활동,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다양함

○ 고양시민 인터뷰 분석

-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인 「2020년 민주를 찾아서」 연구 프로젝트가 고양시민 19명을 대상으로 ① 민주주의 의미 및 정의, ②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경험 및 느낌, ③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④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실시

- 고양시는 시민사회단체간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음

○ 무엇을 할 것인가?

- 구성될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준비협의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모방하여 고양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비민주적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한 조례 개정 필요
- 현 조례의 개정작업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 가치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적 절차 내지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상위 조례의 제정도 중요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준비협의체가 관련 조례와 상위 조례의 제·개정을 논의하면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개발과 활동가와 시민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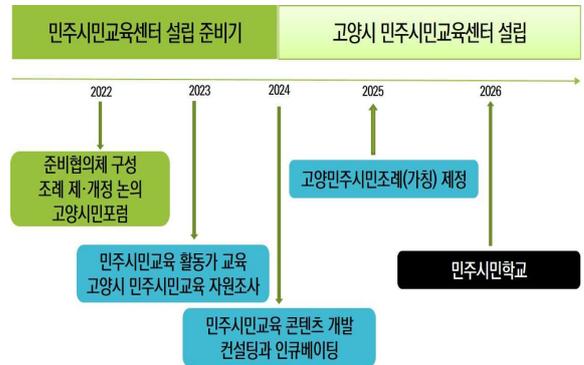
○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감수)성은 이론이나 개념을 통해 단순히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지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민성은 지식이 아닌 삶의 감각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둔 전통적 교육에서 탈피해야 함
- 민주시민교육은 문제설정적 교육이라는 특징을 가짐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구체적인 계기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가운데 얻은 일종의 체화된 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함
- 앞으로 고양시의 민주시민교육은 문자를 통한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성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방법 필요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실행 로드맵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실행 로드맵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실행 로드맵〉



○ 고양형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

- 고양형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뿌리내리기 사업, 그리고 상상력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으로 구성
-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사업은 현재 「고양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상위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준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협의체는 중간조직인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부재한 고양시의 현 상황에서 센터 설립 시까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수행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